AI CEO PARK / EPISODE 03

자는 동안 블로그 자동화 100% 시키는 방법

AI 박대표 3화 · 무료 실전 가이드

원문 작성일 2026-08-21 · 원문의 안내와 명령어, 예시를 수록했습니다.

AI 박대표 시리즈 흐름
1편·2편을 먼저 보고 오면 3화가 더 쉽습니다.
1편은 헤르메스 설치와 Slack 연동, 2편은 AI에게 역할·자료·기준·보고 형식을 주는 방법입니다.
1화 인스타그램 영상 보기

이번 3화의 전제
이 자동화는 헤르메스 설치가 끝난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Slack에서 자비스 같은 AI 직원에게 업무를 시킬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번 편은 "자는 동안 블로그 업무를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가"를 실무 예시로 보여줍니다.

먼저 꼭 해야 하는 것: 헤르메스 설치
ChatGPT나 Claude 웹사이트만 열어서는 이 자동화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컴퓨터에 헤르메스를 설치해야 예약 실행, 브라우저 조작, 파일 확인, Google Sheets 기록, Slack 보고 같은 실제 업무 흐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3화는 "헤르메스를 설치한 다음 AI 직원에게 반복 업무를 맡기는 단계"입니다.

핵심만 먼저

블로그 자동화는 단순히 글 하나 써줘가 아닙니다.

AI 직원에게 반복 가능한 업무 흐름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약 실행 → 키워드 선정 → 자료 확인 → 제목 작성 → 본문 작성 → 이미지 준비 → 네이버 블로그 입력 → 검수 → 임시저장/승인 요청 → 발행 확인 → Slack 보고

글을 자동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블로그 업무 전체를 AI 직원에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흐름

이번 영상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블로그 100% 자동화,
자는 동안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AI가 알아서 아무 글이나 올린다"가 아닙니다.

AI 직원에게 아래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 어떤 주제를 다룰지
- 어떤 키워드를 볼지
- 어떤 자료를 참고할지
- 어떤 표현은 쓰면 안 되는지
- 바로 발행할지, 임시저장 후 승인받을지
- 완료 후 어디에 기록하고 어떻게 보고할지

자동화 시작 조건

AI 직원이 블로그 업무를 하려면 먼저 작업 환경이 필요합니다.

- Hermes 필수 설치
- Slack 연동
- 실제 Chrome에 네이버 로그인
- 기존 블로그 글 링크 5~10개 제공
- 기존 글을 학습해서 톤앤매너, 문단 길이, 제목 스타일, CTA 방식 맞추기
- 블로그 주제·말투·금지사항 설정
- 기존 발행글을 Google Sheets에 누적해서 중복 방지
- 승인 없이 발행하면 안 되는 기준 정리

중요
네이버 로그인 만료, 캡차, 이미지 오류, 중복 발행 위험이 생기면 AI가 억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작업을 멈추고 Slack에 원인과 필요한 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자는 동안 실행되는 실제 로직

1. 예약 실행

매일 정해진 시간에 Hermes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 매일 오전 6시 블로그 초안 준비
예: 매일 오전 9시 Slack 보고

2. 키워드 선정

네이버 모바일 검색 기준으로 후보 키워드를 확인합니다.

- 검색 의도가 명확한가
- 우리 주제와 연결되는가
- 기존 글과 중복되지 않는가
- 과장·위험 표현이 필요한 주제는 아닌가

3. 기존 블로그 글 링크 학습

새 글을 쓰기 전에 기존 블로그 글 링크를 먼저 읽게 합니다.

AI 직원은 기존 글에서 아래 기준을 뽑아야 합니다.

- 자주 쓰는 제목 패턴
- 문단 길이와 줄바꿈 방식
- 설명하는 말투
- CTA 문장
- 반복해서 쓰는 표현
- 쓰면 안 되는 표현

이 과정을 넣어야 새 글이 갑자기 다른 사람 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4. 제목·본문 작성

AI 직원이 기존 글의 톤앤매너에 맞춰 제목 후보를 만들고, 모바일에서 읽기 쉬운 본문을 작성합니다.

- 제목 후보 3개
- 1,500자 안팎의 정보형 본문
- 기존 블로그와 비슷한 문단 길이
- 기존 블로그와 비슷한 말투
- 과장 표현 제거
- 금지어 확인

5. 이미지 준비

표지와 본문용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단, 이미지에 글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깨짐·오타·왜곡을 확인해야 합니다.

6. 네이버 블로그 입력

Chrome의 네이버 SmartEditor에 제목, 본문, 이미지를 입력합니다.

기본 원칙은 바로 발행이 아니라 임시저장 후 승인 요청입니다.

7. 승인 후 발행 확인

대표가 승인하면 발행하고, 공개 URL이 로그인 없이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8. 기록과 보고

마지막으로 발행 이력을 Google Sheets에 남기고 Slack에 보고합니다.

> 발행일 / 키워드 / 제목 / URL / 상태 / 특이사항

나쁜 지시 예시

> 자비스, 매일 아침 블로그 글 하나 써서 올려줘.

문제점:
- 어떤 키워드인지 모릅니다.
- 기존 글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기준이 없습니다.
- 이미지 기준이 없습니다.
- 승인 없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 실패했을 때 보고 방식이 없습니다.

AI 직원은 똑똑해도 기준이 없으면 추측합니다.

블로그 자동화에서 추측은 위험합니다.

좋은 지시 예시

자비스, 너는 우리 회사 블로그 운영 담당 AI 직원이야.

매일 오전 6시에 네이버 모바일 검색 기준으로
창업 관련 키워드 후보 5개를 확인해줘.

기존 발행이력 Google Sheets와 비교해서
이미 쓴 주제나 비슷한 주제는 제외해줘.

아래 기존 블로그 글 링크를 먼저 읽고,
제목 스타일, 문단 길이, 말투, CTA, 자주 쓰는 표현을 학습해줘.
새 글은 기존 블로그와 톤앤매너가 맞아야 해.

기존 블로그 글 링크:
1. [기존 글 링크 1]
2. [기존 글 링크 2]
3. [기존 글 링크 3]

검색 의도가 가장 명확한 키워드 1개를 선정하고,
기존 블로그 톤앤매너에 맞춰 제목 후보 3개와 1,500자 안팎의 블로그 본문을 작성해줘.

본문은 모바일에서 읽기 쉽게 짧은 문단으로 쓰고,
정치·종교·선정적 표현, 과장 표현, 확인되지 않은 수치,
가맹모집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마.

표지 이미지 1장과 본문용 정보 이미지 3장을 준비하고,
이미지의 글자 깨짐·오타·왜곡 여부를 검수해줘.

네이버 SmartEditor에 제목·본문·이미지를 입력하되,
바로 발행하지 말고 임시저장으로 멈춰줘.

Slack에 아래 형식으로 승인 요청을 보고해줘.
- 선정 키워드
- 제목 후보 3개
- 선택한 제목
- 본문 요약
- 임시저장 상태
- 대표 승인 필요 항목

대표가 승인한 뒤에만 발행하고,
공개 URL이 로그인 없이 열리는지 확인해줘.

완료 후 발행일·키워드·제목·URL을 Google Sheets에 기록하고
Slack에 최종 보고해줘.

로그인 만료, 캡차, 중복 발행 위험, 이미지 오류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과 필요한 조치를 먼저 보고해줘.

사람이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

AI에게 맡기기 전에 사람이 먼저 정해야 할 기준입니다.

- 블로그 주제 범위
- 사용할 키워드 범위
- 참고시킬 기존 블로그 글 링크
- 유지해야 할 톤앤매너
- 브랜드명 사용 여부
- 금지 표현
- 이미지 스타일
- 승인 없이 가능한 작업 범위
- 반드시 대표가 승인해야 하는 작업 범위

> 승인 없이 확정하면 안 되는 것
> 가격, 혜택, 계약 조건, 법무 표현, 정산, 외부 발송 문구, 고객 최종 답변은 AI가 임의 확정하면 안 됩니다.

실패할 때의 안전장치

블로그 자동화는 성공보다 실패 대응이 중요합니다.

AI 직원에게 아래 상황에서는 멈추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 네이버 로그인이 풀림
- 캡차 또는 보안 인증 발생
- 같은 주제의 글이 이미 있음
- 이미지 글자가 깨짐
-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주장 포함
- 발행 버튼을 누르기 전 승인 기준이 불명확함
- 공개 URL 확인 실패

이 기준이 있어야 자동화가 오래 갑니다.

완료 기준

블로그 자동화의 완료는 "글 작성 완료"가 아닙니다.

> 임시저장 또는 발행 완료
> + 공개 URL 확인
> + 발행 이력 기록
> + Slack 보고

여기까지 끝나야 실제 업무가 끝난 것입니다.

바로 복사해서 쓰는 짧은 프롬프트

> 자비스, 너는 블로그 운영 담당 AI 직원이야.
>
> 매일 오전 6시에 네이버 모바일 검색 기준으로 키워드 후보를 찾고,
> 기존 발행이력과 중복되지 않는 주제 1개를 선정해줘.
>
> 기존 블로그 글 링크 5~10개를 먼저 읽고,
> 제목 스타일, 문단 길이, 말투, CTA를 학습해서 톤앤매너를 맞춰줘.
>
> 제목 후보 3개, 블로그 본문, 표지 이미지, 본문용 이미지까지 준비하고,
> 네이버 SmartEditor에는 입력만 해줘.
>
> 바로 발행하지 말고 임시저장 후 Slack에 승인 요청으로 보고해줘.
>
> 승인 후에만 발행하고,
> 공개 URL 확인과 Google Sheets 기록까지 끝낸 뒤 결과를 보고해줘.
>
> 로그인 만료, 캡차, 중복 위험, 이미지 오류가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원인을 먼저 알려줘.

이번 편 결론

AI에게 블로그 글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AI 직원에게 블로그 운영 업무의 순서와 기준을 맡기는 것입니다.

> 질문이 아니라 업무를 주고,
> 글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맡기고,
> 완료가 아니라 보고까지 받는 것.

그게 자는 동안에도 돌아가는 블로그 자동화의 핵심입니다.

출처와 원문 작성일

원문 작성일은 2026-08-21입니다. 공개 Notion 페이지의 생성 시각을 한국 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원문의 학습 내용은 유지하고, 하단의 다른 편 탐색과 커뮤니티 안내는 제외했습니다.

https://truthful-gallium-97b.notion.site/AI-3-100-3c3e88296f0181b298f5d1ebaab2895b?source=copy_link